

KIA 새내기 투수들 “몸 만들어 내 상품 가치 높이겠다”

신인 김세일·곽도규·이승찬·박일훈 첫 불펜 피칭 정명원 투수 코치 “선수들 가능성 확인하는 시간”

KIA 제주도 마무리캠프

KIA 타이거즈의 '아기호랑이'들의 마운드 도전기가 시작됐다.

KIA의 제주도 마무리캠프에는 좌완 김세일, 곽도규와 우완 이승찬과 박일훈 등 4명의 2023 신인 투수가 있다. 아직 고등학교 신인인 이들은 마무리캠프를 통해 프로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선배들이 캠프 첫날부터 불펜 피칭에 나서는 등 벌써 세 차례 공을 던졌지만, 신인 투수들은 6일 처음 불펜에 자리를 잡았다.

김중국 감독과 정명원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4명의 신인 선수들은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캠프에서 첫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오랜만에 피칭에 나섰고,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만큼 아쉬움도 있었지만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명원 코치도 “앞으로 어느 정도 향상될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치고는, 또래에 비해서 괜찮았다. 캠프의 목표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신인선수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금씩 해보면서 선수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KIA가 좌완 파이어볼러로 기대하는 마산 용마고 출신의 김세일은 “오랜만에 해서 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직구 제구가 잘 됐다”며 “다음에는 오른쪽 발 옆에서 던지지 않게 받아놓고 피칭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캠프가 힘들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해야 할 것 같다. 러닝이 가장 힘들다(웃음). 지금 러닝이 쳐지고 있는데 바짝 붙어서 열심히 해

야 할 것 같다. 피칭할 때 더 완벽하게 만들고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좌완 스페셜 리스트’로 역할을 기대하는 공주고 출신의 곽도규도 제구를 이야기했다.

그는 “피칭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재미있었다. 직구 인아웃코스, 코스별로 던지는 것에 신경 썼다.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커브는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투심은 잘 들어갔다”며 “곽정철 코치님께서 나라의 상품을 어떻게 팔지 고민하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팔아보겠다. 직구가 숨겨져 나오는 스타일인데 직구가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캠프 생활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다. 시간 활용하는 게 체계적이고 알차다. 필요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고, 훈련량이 많더라도 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름의 루틴이 있는데,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팀에서 프로 데뷔를 앞둔 동성고 출신의 우완 이승찬은 ‘제구’로 어필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아직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구 부분에서 괜찮았던 것 같다. 오랜만에 던지는 것이라 변화구 안 던지고 감 확인하려고 직구만 던졌다”며 “다음 피칭 때는 조금 더 스피드 올려서 세계, 세계 던지겠다. 잘해서 눈에 띄는 선수가 되겠다. 제구력으로 어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막내답게 ‘분위기 메이커’로도 활약을 예고했다.

이승찬은 “훈련이 힘들기는 하지만 적응은 다 끝났다.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려고 한다. 먼저 나서서 하고, 활기차게 팀에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막내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IA 타이거즈의 제주도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2023 신인 투수들. 왼쪽부터 김세일, 박일훈, 이승찬, 곽도규.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산공고 출신의 우완 박일훈은 슬라이더를 점 찍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오랜만에 던져서 감이 없었는데 제구가 나쁘지는 않았다. 슬라이더만 던져봤다. 다음 피칭 때는 존 안에 많은 공을 넣고, 공 끝을 신경 쓰겠다. 내

장점이 직구 회전수인데 그걸 극대화해서 앞에서 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훈련은 힘들지만, 성장의 시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박일훈은 “마무리캠프라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같다. 그래도 밤이 맞았다(웃음)”며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러닝도 열심히 하겠다. 몸을 더 키우겠다. 피칭에 적합한 몸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언급했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제주도 마무리캠프단의 '막내 코치' 곽정철 투수 코치가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다.

“선수들 스스로 움직이게 분위기 만들겠다”

‘막내 코치’ 곽정철 투수코치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답 아냐
냉정과 열정 사이 잘 오가며
부상없이 영리하게 운동했으면

“야구는 난로와 같다. 스스로 움직이고, 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

곽정철 투수 코치(36)는 KIA 타이거즈의 제주도 마무리캠프단의 '막내 코치'다. 그는 현역 시절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면서 KIA 불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린 그는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야 했다. 높은 곳에도 서봤고, 부상으로 인한 어둠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안다.

그는 “선수를 훈련하는 것보단 (운)석민, (양)현종이랑 캠프에서 훈련하던 게 생각한다. 그때

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었다”고 웃었다.

곽 코치는 선수 시절 '성실함'의 대명사였다. 누구보다 모범생이자 훈련 발레로도 통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다.

곽 코치는 “어렸을 때를 잘 생각해보면 ‘무작정 열심히’가 답은 아닌 것 같다. 선수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던 만큼 후회는 없다. 열심히 하면 후회는 없지만 다쳐버리면 소용이 없다”며 “야구를 난로라고 표현한다.

추울 때 다가가면 따뜻하네, 너무 다가가면 뜨겁고 화상을 입는다. 또 뜨겁다고 뒤로 멀어지면 춥다. 이 온도를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한 부분을 잘 지켜야 한다. 냉정과 열정을 잘 오가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열심히 하되, 건강하고 현명하게 하는 게 곽 코치가 바라는 부분이다.

그는 “캠프에 앞서 어느 시점에 투구수 몇 개를 하고, 라이브를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스케줄을 다 줬다. 본인 만의 계획을 가져라고 한다. 무리하지 않고, 힘들 때는 힘도 비축하면서 하라는 것이다. 모든 운동을 다 열심히 할 수 없다. 영리하

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싶은 게 '막내 코치'의 바람이다.

곽 코치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힘든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 고민도 있을 것이다. 훈련할 때 선수들 얼굴 먼저 본다. 조금이라도 선수들 마음 헤아리려고 한다”며 “또 지금 코치, 감독님, 단장님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다. 정명원 코치님이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숨 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나 어렸을 때는 모든 게 감압적이었어. 선배들, 훈련 스케줄, 경쟁 구도 모두가 감압적이었어. 스스로 움직이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며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주고 선택을 선수가 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 일찍 알아듣는 선수도 있고, 시즌 시작하면 알기도 할 것이다. 빨리 이해하고 주문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수술 잘 마쳐...월드컵 가능성 거론은 일러”

대한축구협회 밝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수술을 잘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대한축구협회가 5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치러지는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토트넘 측으로부터 손흥민이 수술을 잘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수술을 막 마친 시점인 만큼,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대표팀 의무팀이 손흥민의 부상 부위 상태와 관련해 토트넘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도 “손흥민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의 의료팀은 수술이 원한 대로 잘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손흥민의 월드컵 참가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1일 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 부위를 강하게 부딪친 뒤 쓰러져 전반 27분 만에 교체됐다.

당시 왼쪽 눈두덩이가 통통 부어오르고, 코피도 흘렸던 손흥민은 겹친 결과 눈 주위 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돼 결국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만큼 손흥민의 회복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개막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와 1차전은 24일, 가나와 2차전은 28일에 열린다.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은 12월 3일에 개최된다.

손흥민의 부상이 알려진 뒤 국내 의학계에선 한 달은 쉬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어느 정도 부상을 달고 뛰는 것은 프로 선수에게 흔한 일어서서 그보다는 빠르게 전역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휴스턴, 5년만에 월드시리즈 정복

필라델피아에 4승2패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5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정상을 정복했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인 휴스턴은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퍼파크에서 열린 WS 6차전에서 내셔널리그 우승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4-1로 역전승했다.

2017년 창단 첫 WS 우승 트로피를 품었던 휴스턴은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등극했다.

휴스턴은 2013년 보스턴 레드삭스 이후 9년 만에 홈구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린 팀이 됐다.

휴스턴의 2017년 우승이 '사인 홈치기'와 '휴지통 두들기기'를 통한 속임수의 결과라면, 이번은 실력으로 일궈낸 첫 번째 우승이다.

5회까지 무실점으로 역투한 잭 휠러가 6회 1사 1루에서 헤라미 페냐에게 중전 안타를 맞고 1, 3

루에 주자가 출루하자 필라델피아 벤치는 좌타자 알바레스를 겨냥해 좌완 파이어볼러 호세 알바라도를 투입했다.

그러자 알바레스는 알바라도의 시속 98.9마일(약 159km) 낮은 싱커를 받아쳐 가운데 담을 넘어가는 역전 결승 스리런 아치를 그렸다.

WS 5차전까지 홈런 없이 타율 0.105(19타수 2안타), 3타점에 그쳤던 알바레스의 침묵을 깬 한 방이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과감한 투수 교체로 '언더독' 필라델피아를 월드시리즈로 이끈 롭 톰슨 감독의 승부수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만 73세로 최고령 월드시리즈 출전 감독이 된 휴스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무관의 한'을 풀었다.

휴스턴의 유격수 헤라미 페냐는 신인 야수로는 최초로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연합뉴스